곡성 특산물로 뚝딱 '깨비정식' 인기

흑돼지 석쇠구이·아기멜론 장아찌 등 푸짐하게 한 상…강레오 셰프 자문

곡성의 새로운 먹거리 '곡성 깨비정식'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깨비정식은 곡성군이 강레오 셰프의 자문을 받아 지역 음식점들과 함께 개발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만들어 낸 것처럼 푸짐하다고 해서 깨비정식이라고 부른다. 그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곡성의 특산물인 흑돼지, 토란, 멜론, 와사비를 한 상에 푸짐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깨비정식은 불향 가득한 흑돼지 석쇠구이를 메인으로 와사비 물김치, 아기멜론 장아찌가 색다른 맛으로 식욕을 자극한다.

알싸한 와사비 향이 코끝을 스치는 와사비 물김치는 자칫 기름질 수 있는 입맛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고, 아기멜론 장아찌는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경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워낙 맛있어서 먹다보면 어느새 '뚝딱'하고 다 사라져 버려서 깨비정식이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

깨비정식은 곡성읍에 소재한 3개의 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다. 깨비정식 전문 음식점인 메란명가를 비롯해 생선나라&단비, 곡성본때에서 지난해 말부터 깨비정식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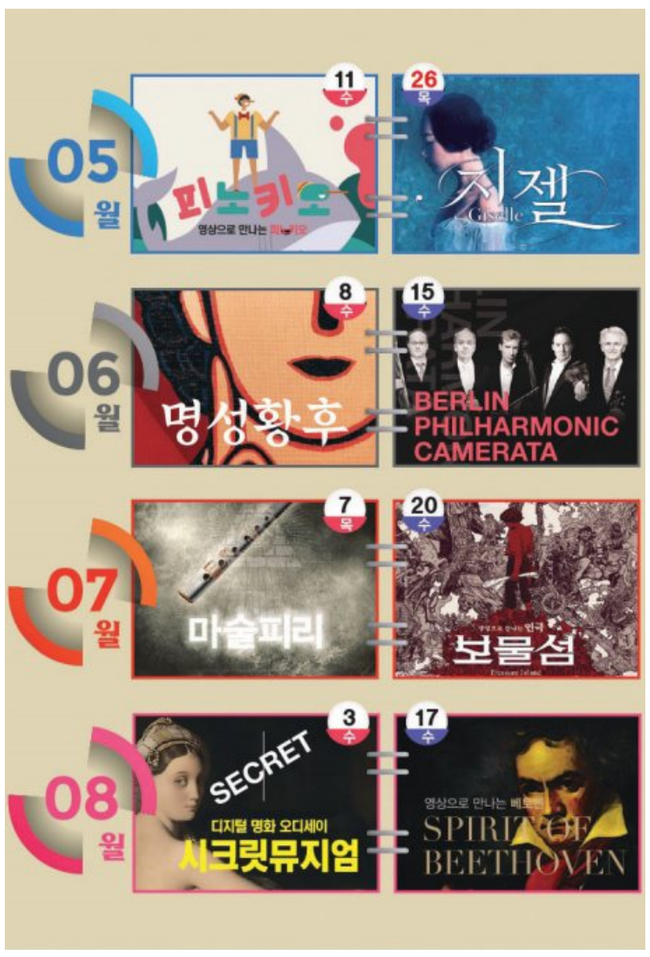
출시한지 반년도 채되지 않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풍성한 한상 차림에 벌써부터 효자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하지만 3개 업소마다 맛을 차별화한 점도 각광받고있다. 각각의 식당을 순회하면서 서로 다른 매력의 깨비정식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곡성군이 개발한 깨비정식은 흑돼지 석쇠구이를 메인으로 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부재료로 한 풍성한 한상차림이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린다"면서 "이번 기회에 곡성 신메뉴 깨비정식을 더 많은 방문객들께서 맛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

명성황후·지젤 공연 영상으로 만나세요



순천시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 사업' 선정
월 2회 공연·전시 무료 상영…순천문예회관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 이젠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순천시는 '2022년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SAC on Screen)'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매월 2편의 우수 공연·전시 콘텐츠 영상을 순천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사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지리적 제약 없이 우수한 공연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산과 지역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11일 전통 인형극 '피노키오'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발레 '지젤', 6월8일 명성황후, 6월15일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7월7일 마술피리, 7월20일 보물섬, 8월3일 시크릿 뮤지엄, 8월17일 스피릿 오브 베토벤, 9월7일 보물섬, 9월27일 스윙, 10월12일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10월19일 늙은 부부이야기, 11월16일 노부스 콰르텟, 11월29일 위대한 낙서, 12월13일 굿모닝 독도, 12월23일 호두까기인형이 상영된다.

관람은 전 좌석 무료이며, 상영 시작 20분 전 까지 선착순 입장하면 관람가능하다.

시는 더욱 선명하고 화상도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대극장 빔프로젝터를 고광량 렌즈로 전면 교체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914석 전 좌석을 개방할 계획이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을 순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순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씨엠테크·피엠에스 등 10곳에 1억1600만원

광양시가 지난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인센티브 1억160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씨엠테크, (주)피엠에스, (주)화인 등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 개선자금 2000만원과 시설자금 융자 한도 우대(20억원), 운전자금 융자 한도(5억원)와 이자(1.4~2.5%)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앙전력(주), 유니테크(주), 케이원테크(주), 케이에스콤프레샤(주), (주)건우, (주)(주)광양기업, 조선내화(주) 등 7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700~800만원의 기업체 후생복지비를 지원받게된다.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올해 하반기 모집할 예정이다.

박종태 광양시 투자일자리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은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LG화학 여수공장,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석유화학 업계 첫 TMS 관제센터 구축…환경오염·안전 대응

LG화학 여수공장이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하는 TMS(굴뚝자동측정기기, Tele-Monitoring System)관제센터를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TMS관제센터.

LG화학 여수공장은 2020년 4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8월부터 TMS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전담인력 4명을 채용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TMS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에 대한 조치, 법정검사 등 철저한 관리와 계획적인 수검을 주 업무로 한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현재 설치된 37개의 TMS를 포함, 올해 말까지 총 288억원을 투자해 73개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환경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대기와 수질 오염원 배출을 포함한 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진남상가 방문하고 지역화폐 받자

여수상의, 11일부터 페이백 행사

여수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점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 일상회복 기원 페이백(구매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줌)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여수진남상가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교동오거리 일대 행사부스를 운영한다.

진남상가 상인회 소속 상점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 영수증을 행사부스에 제출하면 소정의 페이백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수상의는 상점가를 찾는 시민 뿐 아니라 상인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상점가에 페이백 행사 스티커를 부착해 상점가 방문을 유도하고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에 일조할 방침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진남상가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페이백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